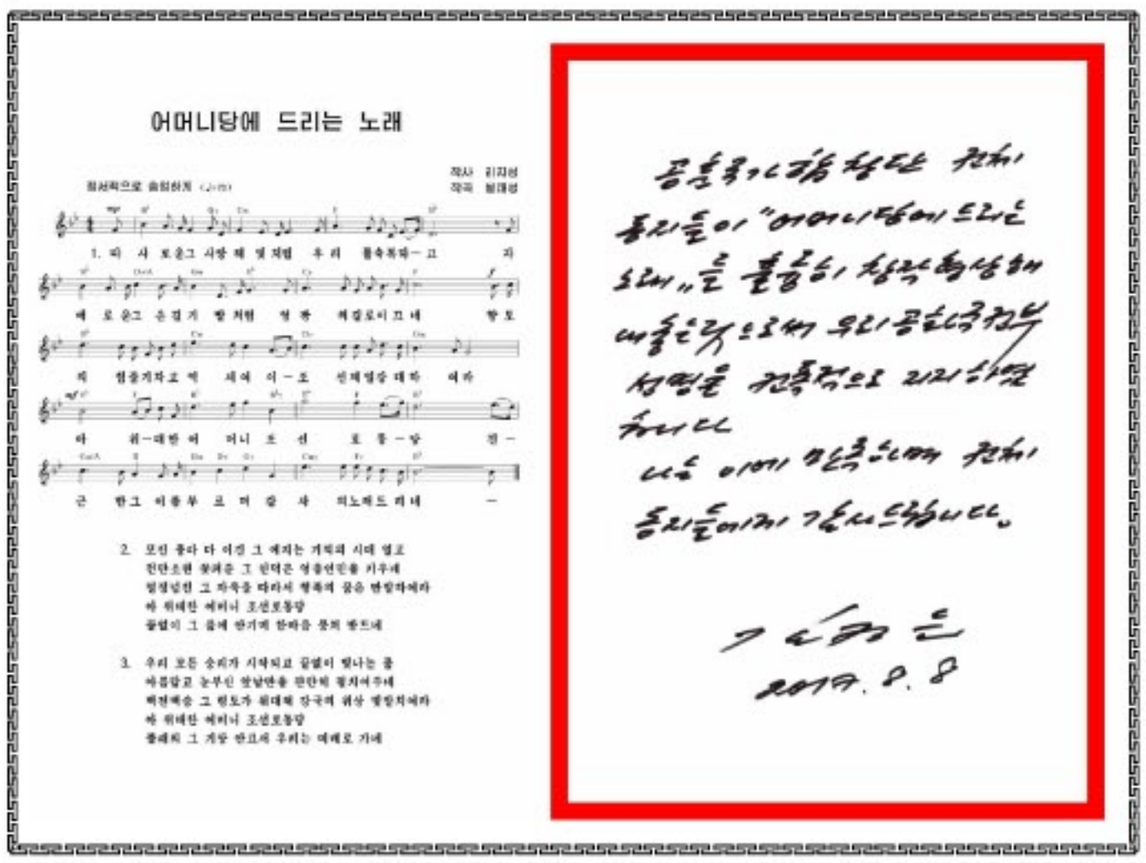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1호 【루계 제25730호】 주체106(2017)년 8월 9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분별없는 《전쟁불사》광증은 아메리카제국의 비극적종말만을 불러오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유엔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무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분별을 잃고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까지 부려대고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트럼프가 《고속으로 전진하는 북의 장거리핵미싸일개발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느니 북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음이 나는것이지 미본토에서 죽지는 않을것이다.》는 미친 폭언을 꺼리낌없이 늘어놓고있다.

유엔무대에서는 미국대사 헤일리가 《미국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선택권을 행사할것》이라고 세계면전에서 공공연히 뇌까리고있다.

지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는 《북이 미국을 위협할수 있는 핵무기들을 보유한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참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북의 핵공격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전쟁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선택안을 준비하고있다.》고 줴쳐대고있다.

여기에 미국방장관 마티스와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단포드, 미합동특수전사령관 토마스를 비롯한 펜타곤의 군부호전광들도 거듬내기로 나서서 맞장구를 치며 《참수작전》과 《대북선제타격》, 《비밀작전》과 《내부교란작전》, 《특수작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슴없이 력설해대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침략군의 유일한 공중투하사단인 82항공륙전사단은 조선전선투입을 예견하여 대규모적인 실전공중강습 및 기동전개훈련에 진입하였으며 25경보병사단과 10산악사단이 조선반도의 지형에 익숙하기 위한 산지훈련에 열을 올리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악명을 떨친 《네이비 씰》 등 테로전담특수부대들이 남조선에 긴급투입되고 《B-52》, 《B-1B》, 《B-2A》를 비롯한 미제침략군의 전략자산들과 《F-22》 스텔스전투기편대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미국본토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공군기지에서는 《B-52H》전략폭격기편대들이 《PDU-5/B》심리전용전단폭탄투하훈련을 벌려놓으며 아군종심에서 내부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비밀작전》준비에 여념이 없다.

해상에서는 2개의 미제침략군 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과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숱한 해적집단을 조선반도수역에 기동전개시킬 계획이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모든 군사적준동은 트럼프를 비롯한 미당국자들의 북침핵전쟁광란이 위험계선을 넘어 극히 무모하고 분별없는 실전행동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제의 전쟁광들이 준비하고있는 모든 형태의 군사적도발을 지금까지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군사적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단호한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아직도 부질없는 미련을 가지고 감히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을 획책하고있는 미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는 즉시 비렬한 음모집단을 죽탕쳐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선제적인 보복작전이 개시될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참수작전》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 자리잡고있는 수도 평양을 《석권》하고 핵 및 전략로케트사용을 불허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극히 무엄하고 악랄한 수뇌부 《제거》작전이다.

우리는 미국이 일단 무모한 음모실현을 위해 움직이기만 하면 천인공노할 작전을 고안해내고 그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일격에 형제도 없이 쓸어버릴 우리 식의 선제적인 정의의 보복작전에 진입할것이다.

특별히 훈련되고 준비된 특공대무리라고 하여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까이에 접근하기도 전에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과 수중, 공중의 봉쇄선밖에서, 지상의 군사분계선 앞계선에서 씨도 없이 소멸될것이다.

우리에게는 《림》이나 소대, 중대, 대대규모가 아닌 세계일류급의 특수작전군이 준비되어있다.

혁명의 수뇌부사수를 수령군, 당군의 최대사명으로, 총대전사들의 제일좌우명으로 간직하고있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장병들의 쌓이고쌓인 대미대적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참수작전》으로 미국이 당하게 될 재난의 참혹상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세계는 분분초초 만전을 기하고 출동대기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용한 특수작전군집단이 일단 움직이면 《전쟁불사》를 부르짖으며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 최고수뇌부를 노린 트럼프와 전쟁사환군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될것이다.

2.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감행하려는 도발적인 《예방전쟁》에는 미국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채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것이다.

트럼프의 그 무슨 안보보좌진들이 새롭게 고안하고 준비하고있다는 《예방전쟁》은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둔 우리의 핵 및 로케트기지를 임의의 시각에 불시에 타격하여 미국에 대한 있을수 있는 위협을 미리막는다는 극히 도발적인 침략전쟁개념이다.

《예방전쟁》교안자들도 제놈들의 행위가 국제적물의를 일으킬수 있는 날강도적인 군사적선택임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예방전쟁》마당을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화국북반부지역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은 조선사람인 반면에 저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비상적인 선택》일수 있다고 줴쳐대고있다.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고 상대가 누구인지, 대세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있는지 초보적인 감각도 인식도 분별도 없는 어리석고 우매한 망상이 아닐수 없다.

전쟁은 결코 유희가 아니다.

일단 미국의 《예방전쟁》행위징조가 나타나면 우리 군대는 그 즉시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령토가 전쟁마당으로 되기 전에 미국본토를 우리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둔 다종다양한 전략적핵타격수단들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여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3. 미국의 군부호전광들이 입버릇처럼 줴쳐대고있는 《선제타격》기도는 우리 식의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선제타격은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세기를 두고 침략자 미제와의 판가리대결전을 준비해온 우리에게는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선제타격도 앞질러 짓부실수 있는 우리 식의 독특한 선제타격방식이 있다.

우리의 핵 및 로케트기지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그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은 미국의 무모한 선제타격기도가 드러나는 그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1, 3야전군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전 종심에 대한 동시타격과 함께 태평양작전전구의 미제침략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에 참가할 모든 타격수단들도 임의의 시각에 내리는 명령에 따라 정의의 불줄기를 세차게 뿜어낼 대기상태에 있다.

4. 우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고 제도붕괴를 노리고있는 미국의 《비밀작전》은 전민항전으로 보란듯이 짓뭉개버릴것이다.

최근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이 운운하고있는 《비밀작전》은 장계들로 편성된 특공대무리들을 우리 내부에 침투시켜 살인, 방화, 파괴와 같은 만동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심리전과 배합하여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어리석은 흉계이다.

이 흉계를 실현하려고 미국본토에서는 심리전용대형전단폭탄투하훈련까지 벌려놓고있다.

《비밀작전》은 미국이 이라크와 리비아를 비롯한 중근동지역과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적용한 특수작전의 한 형태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서 꿈꾸고있는 《비밀작전》은 300만 소년단원들과 500만 청년들을 포함한 전체 인민의 반미항전으로 보란듯이 짓부셔버릴것이다.

상대를 알고 자기도 알고 벌리는 전쟁은 백전백승하지만 상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벌리는 전쟁은 백전백패한다고 하였다.

지금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광기를 부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으로 뭉친 불패의 사상강국,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금성철벽의 나라이다.

망조가 들어 운명이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나라가 저들이 사는 아메리카제국이라는것을 모르는데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의 비극이 있다.

결국 미국은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헤덤비는것으로 하여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하게 되여있다.

천만군민이 미국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슴을 끓이며 서리발총검을 억세게 틀어쥔 이 땅에 감히 더러운 흉계실현을 위해 기여드는 놈들은 살아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이 침략자 미제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기도가 음흉해지고 로골화될수록 우리 군대의 군사적대응강도도 그만큼 거세여진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우리 혁명무력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무분별한 군사적모험에 나선다면 아메리카제국의 비극적종말은 더욱 빠른 속도로 들이닥치게 될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8일
평 양

미국은 현 상황에서 극히 신중해야 하며 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행동도 특별히 삼가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성명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삼고 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올해 4번째로 되는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감행하고 태평양상의 괌도 앤더슨공군기지에서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내몰아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겨냥한 실전핵타격훈련을 벌짓이 강행하였으며 각종 핵전략장비들을 우리 코앞에 끌어들이면서 지역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나름의 군사적행동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극도로 첨예한 긴장상황에서 위험한 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불씨로 된다.

특히 괌도에서 출격한 핵전략폭격기들이 빈번히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우리의 전략적거점들을 타격하기 위한 실전연습과 위력시위놀음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엄중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대조선침략의 전초기지, 발진기지인 괌도를 예의주시하게 하며 제압전제를 위한 의미있는 실제적행동을 반드시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8월 8일 오전에도 괌도의 공중비적들은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광기어린 실전연습을 벌려놓았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적행동성격을 평가하시면서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 주변수역과 태평양이 조용할 날없이 갈개며 예민한 지역에서 무적질한 군사적망동을 일삼고있는데 미제의 침략장비들을 제압전제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행동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하신바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때없이 남조선상공에 날아들어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공갈하고있는 미제의 핵전략폭격기들이 틀고앉아있는 앤더슨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군사기지들을 제압전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으로 괌도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있다.

이 괌도포위사격방안은 충분히 검토작성되여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우리 공화국해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실행될것이다.

이 사격계획이 단행될 경우 미국놈들이 우리 전략무기들의 위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먼저 체험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미국에 다시금 명백히 강조하건대 우리 공화국이 그 모든것을 무릅쓰고 피땀으로 만들어낸 전략무기들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고 그 무엇과 맞바꾸기 위한 흥정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미국의 정치경제적압박과 군사적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수단이라는것이다.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이라는 선택권이 과연 미국에만 있겠는가.

미국이 자기 나라 땅을 그 누구의 공격도 받을수 없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황한 망상이다.

미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들이 지금 이 시각도 태평양을 마주 향해 항시적인 발사대기태세에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며 우리의 탄도로케트들의 발사방위각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미국은 옳바른 선택으로 래일에 가서 오늘을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무뚝이한 군사적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06(2017)년 8월 8일
평 양

단말마적인 허세를 부리는 미제의 무모한 핵전쟁광기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8일 미제는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또다시 남조선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공갈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날 미제호전광들은 괌도에 새로 증강배치한 핵전략폭격기 《B-1B》 2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출격시켜 괴뢰공군 전투폭격기들의 엄호밑에 상동사격장에서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타격하는 훈련을 감행하면서 전쟁광기를 부려댔다.

사태의 엄중성은 트럼프 미행정부의 고위우두머리들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에 대하여 공공연히 떠들어대다못해 그 무슨 《예방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망말들을 마구 줴쳐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핵전략폭격기들이 도적고양이처럼 은밀하게 남조선지역 상공에 기여들었다는데 있다.

이것은 미제호전광들이 임의의 시기에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불의에 타격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 미제침략군의 군사적움직임이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가운데 핵전략폭격기들이 조선반도지역 상공에 때없이 날아들고있는것은 미제야말로 우리를 기어코 핵으로 압살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핵전쟁미치광이들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불의성에 기대를 걸고 핵전략폭격기들을 은밀하게 조선반도지역 상공에 파견하여 불의에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타격하려 하고있지만 우리 인민군 반항공무력은 핵전략폭격기들이 괌도에서 리륙하는 순간부터 일거일동을 손금보듯 장악하고있으며 조준경안에 집어넣고 임의의 시기에 격추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제호전광들의 무모한 도발망동은 비약적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공화국의 강위력한 힘에 질겁한 나머지 제 죽을줄 모르고 헤덤비는자들의 단말마적인 허세에 불과하다.

미제가 저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우리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으로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미제와 반드시 결판을 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만 백배해주고있다.

미제는 《선제타격》이든, 《예방전쟁》이든 그것은 모두 자기의 최후멸망으로 막을 내리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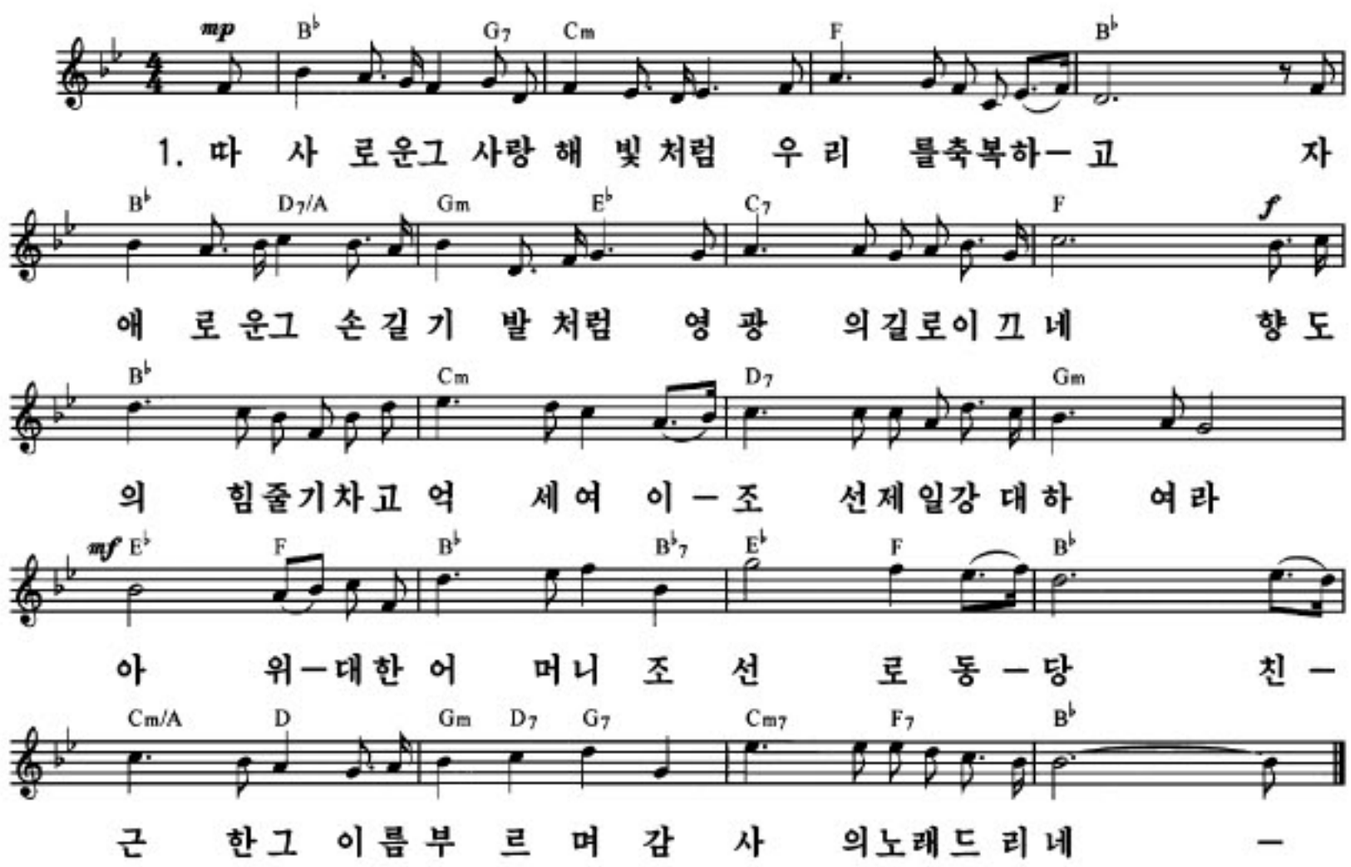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미제의 가소로운 허세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제호전광들은 멸망에 직면한 자기의 가련한 최지를 똑똑히 깨닫고 더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작사 리지성
작곡 설태성

정서적으로 숭엄하게 (♩=73)



2. 모진 풍파 다 이긴 그 예지는 기적의 시대 열고
천만소원 꽃펴준 그 인덕은 영웅인민을 키우네
열정넘친 그 자욱을 따라서 행복의 꿈은 만발하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끝없이 그 품에 안기며 한마음 뭉쳐 받드네

3.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아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찬란히 펼치여주네
백전백승 그 령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빛발치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패의 그 기상 안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각계의 반향

병진의 길, 자력자강의 한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제2371호가 조작된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지금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끓이고 있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는 나라들이 뻔뻔스럽게도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두고 《국제정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떠들며 위글방쑥덕공론을 벌려 전대미문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조작되군 한 날강도적인 유엔《제재결의》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는 속에서도 얻을것은 다 얻고 손에 쥘것은 다 쥐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전략무기체계를 완성하여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한 민족사적대사변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가장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였다. 이런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너절한 《제재》나발에 마음이 흔들릴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병진의 보검으로 적대세력들의 초강도제재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며 자기가 선택한 정의의 길을 따라 추호의 동요도 없이 곧바로 보무당당히 나아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놓고 우리가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는것이 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뿐이라는것이다. 누구도 우리가 잘살고 강대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존엄, 우리의 행복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창조해야 한다는것이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뼈속깊이 새겨주는 철리이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백승의 보검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이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소동은 최후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며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것을 실증해주는 가장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부정의가 정의앞에 무릎을 꿇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적대세력들은 머지않아 그것을 통절히 깨닫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병진의 길, 자력자강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 수 용

경제건설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미국은 오늘의 시대와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처럼 투철한 반제혁명정신을 지니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련전패승을 떨쳐온 인민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민이 있는 한 선군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정부 성명에 천명된바와 같이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서 핵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범죄시하는 불법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이 제재를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것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국방력이다.

오늘 우리의 국방력은 청소한 무력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던 지난 세기의 50년대나 제국주의련합세력에 맞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던 그때와는 비할바없이 강해졌다.

수소탄시험에서 성공,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이것은 세기를 이어 다지고 다져온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이며 그 무슨 제재요, 압력이요 하는것도 물거품으로 되고만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요, 핵위협이요 하면서 몽닥소동을 피워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배짱과 영웅적기상은 더욱 백배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부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뿐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혀주고있다. 하기에 우리의 귀전에는 오늘의 반미대결전에서 더 힘차게 울려퍼질 승리의 만세소리가 들려오고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목표들이 실현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풍년로적가리가 높이높이 쌓아지는 날도 눈앞에 보인다.

우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일의로 충만되여있다.

목표는 아름차고 애로와 난관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때 그 어떤 《제재결의》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을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올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그리하여 혁명의 년대마다 알곡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전통을 빛내이겠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 인 호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의 단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이렇게까지 겁을 먹고 전대미문의 《제재결의》를 꾸며낸 미제와 그 어중이떠중이들의 몰골이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그 어떤 《제재》책동으로 가로막고 우리 제도를 어째볼수 있다고 라산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정치적암둔성에 조소를 보낸다. 더우기 이번 《제재결의》에 감지덕지해하며 미국상전의 범죄적인 대조선제재압살책동에 돌격대로 나서 제거품을 물고 뎅렬하게 혀바닥을 놀려대는 괴뢰청와대것들은 더 혼할 여지도 없는 정치속물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경공업의 굳건한 토대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아보려고 날뛰는 온갖 적대세력들과 총결산하는 심정을 안고 우리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에서 혁혁한 비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 식료일용공업성아래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생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자기가 생산하는 인민소비품 하나하나를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파렴구를 내는 《주체탄》으로 만들 사상적각오에 충만되여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속에서도 끝끝내 100% 주체화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만들어내여 이렇듯 적들을 전률케 하고 주체조국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우리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원료, 자재의 주체화를 줄기차게 실현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겠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국방과학전사들이 추켜든 이 신념의 구호가 지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서도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우리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혁명의 2대전선에 내세워준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인민생활향상의 전구마다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을 벌려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불구덩이로 만들것이다.

식료일용공업상 조 영 철

선군조선청년들의 본때를!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되는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에 선군조선의 수백만 청년들은 지금 끓어오르는 격분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도 언급된바와 같이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날강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기 주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꾸며내고 그 무슨 군사적선택을 고려하고있다는 주제넘은 망발까지 내뱉고있다니 이를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고립압살속에서도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들은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 될지언정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날강도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이 우리를 걸고들면 들수록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는 칠천지 원쑤들에 대한 정의의 징벌의지만이 백배, 천배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선군혁명의 최후대, 조국보위전의 주력부대입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침략과 전쟁을 강요하는 원쑤들에 대해서는 자비와 용서를 모르고 끝까지 결산하고야마는것이 우리 선군조선청년들의 특질이며 본때이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1950년대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모두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늘도 없는 청춘을 시슴없이 바쳐싸우는 열혈의 투사들로 준비시키겠다.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념의 노래, 투쟁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그 어떤 전지풍파가 닥쳐와도 당을 따라 오직 끝바로 나아가겠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배심든든하다.

우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미쳐날뛸수록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천겹만겹의 방탄벽이 되여 결사옹위할것이며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그대로 800만의 로케트가 되고 총폭탄이 되여 가증스러운 원쑤놈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선군조선의 청년들은 결코 빈말을 모른다.

세계는 머지않아 선군조선의 청년들이 어떻게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최후승리를 안아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단호히 짓뭉개버리고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결의에 넘쳐있는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사 설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접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치솟는 적개심과 멸적의 보복의지가 하늘에 닿고있다.

누구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기에 천신만고를 다하여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의 죽제의 력을 짓뭉개버릴수 있는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 주체조선의 힘찬 진군에 감히 도전해나선 원쑤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가 활화산처럼 무섭게 분출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6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주대도 없으며 초보적인 신의와 대국의 체면마저 저버린 덩지큰 우리 주변국들까지 겁에 질려 미국의 횡포무도한 장단에 합세하여나섰다.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서 핵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범죄시하는 불법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기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십년간 수차례에 걸쳐 조작된 유엔《제재결의》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사태는 별로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며 거기에 조금도 놀라거나 기가 눌리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오히려 우리 천만군민에게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과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만 더해주고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원쑤격멸의 기개를 백배해줄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련의 천만고비를 헤치며 마련한 대륙간탄도로케트도 위력하지만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천만대적이 덤벼든다 해도 끄떡하지 않고 맞받아 련속공격해나가는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의 일심단결은 더없이 위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은 위대한 당을 따라 장구한 반제반미투쟁사에 오직 현전현승만을 빛나게 아로새겨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내리는 무자비한 철추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을 이끌어 우리 당은 적대세력의 온갖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해버리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것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며 백년숙적인 미제를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처넣고 쌓이고쌓인 원한의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야망, 백수십년전부터 감행하여온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장기간에 걸치는 우리와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력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하면서도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반공화국책동에 계속 미쳐날뛰고있는것이 바로 미제이다. 미제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고도 남을 핵살인장비들을 휘두르며 수십년간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엄중히 위협해온 사실은 세계를 경악시키고있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꾸며냄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오늘 미제는 완전히 리성과 분별을 잃고 사상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떠여달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감히 놀래워보려 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세기를 두고 만장약해온 불타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총폭발시켜 미제에게 영영 헤여나올수 없는 련속적인 강타를 드세게 들이대야 할 때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당이 가리키는 병진의 한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명실상부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섰다. 이것은 저들만이 핵을 독점하고 핵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며 저들의 탐욕적리익을 채우려는 핵렬강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핵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을 오히려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야만적인 초강경제재를 끈질기게 감행하고있는것이다. 오늘 미국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날강도적인 유엔《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낸것도 우리를 병진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고 우리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어떻게 하나 무력화시키려는데 주되는 목적이 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길, 핵무력강화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고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것은 다 얻고 손에 쥘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새로운 제재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목숨은 버릴지언정 절대로 굽힐수 없고 추호도 변할수 없는것이 병진의 한길로 굴함없이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다.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것이 이번 공화국정부성명에 맥박치는 강인담대한 배짱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갈것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년숙적 미제와 끝까지 총대로 총결산하려는 불타는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를 안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전포성을 계속 힘있게 울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뜻깊은 7월에 현이어 펼쳐진 민족사적인 대경사, 특대사변을 통하여 온 세계가 우러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으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신념을 뼈에 새기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전두에서 이끄시기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책동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앞장에서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원수님의 제일통지, 참된 전우가 되여야 한다. 누구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결사관철의 투사, 시대의 영웅이 되여야 한다.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최대의 힘을 넣으며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범접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철옹성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전군, 전민이 원쑤격멸의 보복성전에 총궐기하여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 자기의 성스러운 위업과 신성한 제도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 결사의 의지로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반제반미대결전의 최강의 무기이다.

인민군대는 최대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적들이 만일 선불질을 해댄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입격에 격파분쇄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은 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혁명무력의 공격전에 발을 맞추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원쑤들을 씨도 없이 짓뭉개버리기 위한 전인민적인 소탕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고 원쑤들을 무찌르는 심정으로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더 큰 기적과 대비약적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는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을 안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우리 식의 최강의 주체무기, 주체탄들을 만들어낸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더욱 맹렬히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강위력한 병진의 보검이 있으며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총돌격해나가자.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또다시 대조선《제재결의》제2371호를 조작해내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저질렀다.

적들의 정면도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단은 무엇인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바로 이것이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의 도전이 악랄해질수록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들고 더 큰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은 태심든든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대대는 초강경대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분쇄하였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지럽게 불어오는 부르죠아자유화바람과 〈개혁〉, 〈개방〉 바람도 선군총대의 기상으로 날려버리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였습니다.》

영웅조선은 미제의 광증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불사신처럼 떨쳐일어나 원쑤들을 패배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대한 배짱이고 추호도 흔들림없는 철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제적림장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이며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림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원쑤들의 강경을 초강경으로 제압하는 힘은 투철한 반제자주적림장에서 나온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피수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초강경의지로 현전현승의 개가를 높이 불렀다.

주체101(2012)년 8월을 잊을수 없다. 연평도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해열점수역의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대며 우리의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약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였다.

이것은 무모한 도발광기를 부리던 원쑤들을 호되게 탐색기고 기를 꺾어놓는 백두산호랑이의 무서운 불호령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쑤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련속공격전, 무를 꿇을 때까지 탐색기는 드센 타격력으로 놈들을 기절초풍케 하시였다.

지난해 우리의 자위적선제인 핵억제력강화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구실로 미제가 조작했던 날강도적인 《제재결의》가 어떻게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은 원쑤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적들은 우리의 핵무기의 실체를 보고 눈앞이 뒤집혀 완전한 심리적쇼크상태에 빠지고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놈들이 미쳐 정신차림새없이 련거퍼 철추를 내려시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한도로케트발사훈련, 조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제단분리시험,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

우리의 멸적의 기상앞에서 악의 무리들은 넋살이 떨어져 맥없이 주저앉고말았다. 우리 공화국은 결코 미국의 카스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아니다.

힘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강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원쑤들의 도전에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백두산악과도 같은 의지, 투철한 자주적림장을 견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 조국은 백두산대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발광하는 미제를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처넣기 위한 총결사전에 돌입하였다. 원쑤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 기어이 승리하는것은 주체조선의 기질이고 대응방식이다.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와 공존하는 길로 나올 대신 더욱더 발악적으로 날뛰는 미국놈들을 조선이 어떻게 징벌하는가를.

본사기자 최 유 일

무자비한 징벌

오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소동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원쑤격멸의 의지로 세차게 고동치게 하고있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에게는 언제나 무자비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기를 두고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을 통하여 간직한 철의 신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이 분별없이 불질을 할 때에는 즉시 맞불로 대답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을 징벌하고 조국을 통일할것입니다.》

어느해 무더운 여름날이였다.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끊임없이 조국수호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에도 어느 한 최전연초소를 찾으시였다.

뜨겁게 내려쪼이는 불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초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진지에서 묵묵 초소지휘관에게 맡겨진 전투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즉시에 초소지휘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덤벼드는 적들을 순간에 요정내겠다고 신심에 넘쳐 보고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미더운 눈길로 초소지휘관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령만 내리면 적들의 초소를 단방에 풍지박산을 만들어서 뒤죽박죽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들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쓸다쳐놓으면 다시 살아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서리발같은 섬광이 번쩍이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두의 천출명장을 우러르는 한 일군의 뇌리에는 불현듯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군사일군들의 협의회때의 일이 떠올랐다.

협의회에서는 날로 악랄해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단호히 맞받아나갈 중요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게 되여있었다.

회의기본안건을 토론하기 직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승리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한사람같이 승리할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비껴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밖인지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며 정말 이길수 있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이번에도 이길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약 그렇지 못한 역경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근엄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듭되는 물으심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론 그런 일은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닥쳐온다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째로 날려보내겠다고 하시였다.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가 넘쳐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은 장내를 진감하며 뢰성처럼 울려퍼졌다.

진정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령장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단호한 선언이였다.

그때를 돌이켜볼수록 일군의 가슴속에는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이때 정일봉의 우뢰소리와 같은 우리 장군님의 음성이 다시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이 덤벼들면 무자비하게 족쳐야 한다고, 우쭐대면서 거만하게 날뛰는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자비한 징벌만이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필승의 신심과 용맹을 북돋아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초소지휘관은 격정에 넘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요정내겠다고 힘차게 보고드리였다.

보고라기보다 심장의 웨침이였다.

이것이 어찌 초소지휘관의 심정만이라.

그날 초소지휘관이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다진 맹세는 백두령장을 그대로 닮은 우리 혁명적무장력의 담력이고 배짱이였다.

그렇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듯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을 안겨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답은 오직 하나이다.

무자비한 징벌로 미제국주의를 박멸하자!

본사기자 강 원 남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을 열어나간다

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훌륭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올해에 들어와 맡겨진 철정광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는 흐뭇한 소식이 전해질 때면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이다. 하다면 이들은 굴지의 철정광생산기지인 무산의 약동하는 숨결과 과연 어떤 인연을 맺고있는것인가.

단번성공의 비결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지난해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도입한 기술들은 말그대로 단번에 성공한것으로 하여 이곳 기업소에서의 반영은 대단하다.

우리 나라 합금원소들을 미량으로 첨가한 내마모주철볼과 대형굴착기바가지이발, 파쇄기안불임재료의 질제고, 착정기정미리생산을 위한 용해기술공정확립, 용접봉심선의 질제고…

이 성과는 지난 기간 각종 합금강들의 주체화실현을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흑색금속연구소 실장 리영일, 로송철동무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몇해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베아링강을 자체로 생산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나섰을 때 주저없이 이 연구사업을 맡아나섰다. 그때 이들에게는 성공할수 있다는 담보도,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들도 없었다. 그야말로 초행길이였다.

현실에 필요한것이면 그것이 설사 하늘의 별을 따오는것이라해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비상한 분발심으로 막아서는 난관을 이겨내며 이들은 끝끝내 기계적성질이 좋은 베아링강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런 좋은 성과와 경험들이 든든한 주추돌들을 이루고있었기에 과학자들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달려가 단번성공이라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었다.

우리 식의 금속재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단번성공으로 빛을 보았다. 사실 그 개발도 처음부터 순탄하였던것은 아니였다.

이 문제를 놓고 과학협의회가 조직되였는데 금속재료개발에 어떤 합금원소들을 리용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과 론쟁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합금원소들을 수입하여 손쉽게 금속재료들의 질을 올리겠는가 아니면 우리 나라에 흔한 티탄이나 붕소를 리용하여 미량합금강을 개발하겠는가 하는 열띤 론쟁이 벌어졌다. 초행길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하는 법이다. 토론이 심화될수록 일부 원료들을 수입하여서라도 내마모주철, 내마모강의 질을 올려 생산성을 높이는것이 더 좋을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이때 연구소 소장 김혁동무가 나섰다.

《우리는 비록 힘이 들어도 반드시 우리 나라에 흔한 합금원소들을 리용하는 우리 식 합금강생산기술을 확립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연구과제인데 우리는 쉬운 길로 가고 힘든 길은 다음세대에 맡긴다면 우리가 무슨 선군시대 과학자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립장에 서서 방도를 찾아봅시다.》

심장을 파고들며 절절하게 울리는 소장의 이 말과 함께 연구방향은 결정되였다.

이렇게 시작된 연구사업이 끝을 볼수 있게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적극 도와나섰다. 때없이 찾아와 후방사업도 해주고 여러차례의 협의회도 조직하여 걸린 문제도 풀어주었다. 기업소기술일군들과 공업시험소 연구사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뜨거운 진정을 바쳐 문제해결에서 돌파구로 되는 방안들도 찾아냄으로써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소장 김혁동무는 지난 기간 진행하여온 연구사업의 결과들이 실천에서 증명되였을뿐이라고 흔연히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시대적책임감을 지닌 이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연구사업을 성공에로 떠민 중요한 비결이라고 보게 되였다.

순결한 과학적량심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연구사업에서 하나와 같이 철칙으로 삼는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연구과제라도 생산공정수립으로 만족할것이 아니라 손을 뗄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지난해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내마모저합금강을 생산할수 있는 용해, 주조, 열처리공정을 세워줌으로써 굴착기바가지이발과 파쇄기안불임재료의 질제고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 티탄함량보장, 열처리공정기술관리, 불합리한 조형공정 등 여러 요인으로 하여 자이한 금속재료들의 질을 높이는데서 일련의 결함들이 나타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사실 연구소에서 필요한 공정을 세워주고 기술지도서도 넘겨주었기때문에 이들에게 합금강생산이 잘되지 않는 책임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연구소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가지 연구성과를 도입하여도 오늘뿐아니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완전무결한 성과라야 떳떳이 자부할수 있다.)

이런 과학적량심이 체질화되였기에 실장 리정철, 연구사 최창민, 박명학동무들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로 주저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놓는것이 우리 과학자들의 량심이 아니겠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머나먼 현지로 떠나는 과학자들에게 초급당위원장 김원철동무가 한 말은 큰 힘이 되였다.

이러한 책임감을 안고 불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장에서는 규소-티탄에 의한 티탄합금화와 티탄정광에 의한 직접합금화용해공정이 새로 수립되고 합리적인 열처리기술관리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하여 굴착기바가지이발의 수명이 훨씬 늘어나고 정머리강생산을 위한 효률적인 중주파유도로가 제작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연구소에는 이런 과학적량심을 지닌 과학자들이 많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주체철생산정상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80고령의 년로한 몸이지만 순결한 과학적량심을 지니고 지금도 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연구사 김일찬동무, 자강력의 창조물인 중형메투프정기를 설계제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중광메투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지금도 현장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압착가공연구집단의 과학자들…

이런 참된 모습들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그대로 우리 과학자들이 걷는 탐구의 자욱자욱의 생동한 화폭이 되고 그것이 곧 시대의 기적으로 이어지는것이다.

본사기자 박 현

현실에서 절박한 문제를 해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들은 이야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용접봉생산기지를 볼수 있다. 이 용접봉직장에서는 값비싼 수입용접봉을 대신하는 우리의 용접봉이 생산되여나오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 때마다 상원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잊지 못하는 한 과학자가 있다. 얼마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찾은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그가 바로 중주파유도로에서 질좋은 용접봉심선강을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용해방법을 연구도입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재료연구소 연구사 박사 부교수 고영철동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고영철동무가 용접봉심선강문제때문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나간것은 지난해 4월경이였다.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는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돌파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으로 들끓고있었다. 생산이 늘어날수록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들중의 하나가 바로 중요설비보수에 필요한 질좋은 용접봉을 보장하는 문제였다. 당시까지 기업소에서는 요구되는 용접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자력자강의 열풍속에 기업소에서는 질좋은 용접봉을 자체로 생산리용하기 위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용접봉심선소재문제를 풀지 못하여 품을 들인데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고영철동무의 마음속충격은 참으로 컸다. 하루라도 빨리 벅찬 현실에 뛰여들지 못한 자책감이 갈마들었다.

사실 그에게는 용접봉심선강생산기술과 관련한 뜻 있는 추억이 있었다.

주체99(2010)년 12월 2일 단천광산기계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용접봉직장에서 생산한 용접봉을 몸소 보아주시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용접봉이 용접공들의 호평을 받고있으면 짐이 편참은것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용접봉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을 준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금속재료학강좌의 연구사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분한 평가를 받아안은 주인공들중의 한사람이 바로 고영철동무였다. 그때 연구도입한것이 바로 기존관념으로는 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던 중주파유도로에서 용접성과 평간인발성이 좋은 용접봉심선강을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용해방법이였다.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와 공업폐설물을 리용하여 중주파유도로에서도 탄소와 규소, 류황 등의 함량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조작이 단순하고 원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용해방법은 그후 황철을 비롯한 몇개 단위에도 도입되였다.…

중주파유도로며 현대적인 분석설비까지 갖춘 상원의 현장조건은 정말 좋았다. 게다가 일군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조건보장열의도 대단하였다.

신심을 가진 고영철동무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현장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새로운 용해방법과 그 과학기술적원리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용해 전과정에 익숙하도록 일명 《락상용해》라고 부르는 과정도 세밀히 지도하였다.

충분한 준비밑에 드디여 중주파유도로에서는 새로운 용해방법에 의한 첫 출강이 진행되였다.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긴장하게 지켜보는 속에 진행된 분석결과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였다. 용접봉심선소재로서의 질적지표를 단번에 충분히 만족시켰던것이다. 사람들은 환성을 올렸다.

고영철동무가 온지 불과 이틀만에 일어난 일이였다.

이때로부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용접봉을 우리의것으로 대신하고있다.

중주파유도로에서의 이 새로운 용해방법은 얼마전에 진행된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았으며 금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리명희

새로운 물처리기술 개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해결하며 에네르기보장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소금물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철유기화합물을 공업적방법으로 제거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원리가 간단하고 많은 시약과 보조설비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탈염수생산공정들이 있는 임의의 단위들에서 쉽게 도입할수 있다.

지난 시기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이온교환수지의 로화와 철유기화합물에 의한 오염, 물정정공정에서 응집제소비량의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이온교환탑의 물처리능력이 떨어져 탈염수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철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데는 염산으로 철이온을 탈착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을 공업적으로 도입하자면 산에 의한 설비들의 부식을 방지하고 음이온교환수지가 산화되는것을 막을수 있게 엄밀한 조작조건을 준수해야 하였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되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로 달려나간 화학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탈염수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특히 박사 부교수 리안국동무는 지난 시기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물정화기술들을 도입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소금물침출법에 의하여 철유기화합물을 제거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음으로써 연구사업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생산현장에 적합한 소금물처리방법을 확립하자면 소금물과 철유기화합물사이의 농도차와 음이온교환수지의 처리시간, 처리온도, 처리회수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소금물처리후 음이온교환탑의 재생방법을 수립하여야 하였다. 실장 김광명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통쾌하게 짓부시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전력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하여 철유기화합물을 제거할수 있는 합리적인 소금물농도와 처리온도를 확정하고 이온교환탑에서의 소금물처리방법과 재생방법, 소금소비량을 줄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였다.

화학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소금물침출법에 의한 음이온교환수지의 오염제거기술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도입한데 의하면 음이온교환탑의 물처리능력이 훨씬 높아져 탈염수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수입에 의존하던 음이온교환수지를 수십t, 이온교환수지의 오염제거에 리용되던 수많은 가성소다와 류산을 절약하여 국가에 큰 경제적리익을 주었다.

이 기술은 올해에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되였다. 이 성과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자체의 기술적잠재력을 발동하여

평안남도체신관리국에서

지난 5년간 전국과학기술축전들에서 해마다 1등을 하여 5연승을 기록, 2013년이후 진행된 전국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들에서 련속 1등 쟁취…

평안남도체신관리국에서 이룩한 이런 놀라운 성과를 알게 되였을 때 우리는 아마도 이 단위에는 그런한 기술력량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지에서 목격한 사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알아보니 이 단위에는 학위학직소유자도 얼마 없었고 기술력량도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강하다고 말할수 없었다.

기술일군들도 만나보고 기술혁신, 창의고안명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과정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이곳 일군들의 남다른 조직사업에 눈길을 돌리게 되였다. 모든 당, 행정일군들의 사업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도입하는데로 지향되고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체신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운 당일군들, 하나의 직관물을 게시하고 대중체육활동을 한번 진행하여도 그것이 곧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의욕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자체의 기술력량에 철저히 의거하여 체신의 현대화와 운영정상화를 우리 식으로 실현하는것을 기술개발의 중심으로,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 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전개해나가고있다는 국장 안덕원, 기사장 김영덕, 과장 로만홍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사업기풍 또한 진취적이였다.

자신들부터가 높은 과학기술적자질을 지니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 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기술수준과 능력에 맞게 연구종자도 안겨주고 시야도 넓혀주면서 그들을 적극 계발시켜주었다는 이야기, 운영실천속에서 기술발전의 새로운 싹을 찾아내면 그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면서 품을 들여 가꾸어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아글타글 애써왔다는 이야기…

자기 단위의 기술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믿고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있는것은 본받을만 한 사업기풍이였다.

자신들이 앞장에서 이신작칙하고 기술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연구개발과제수행에 대한 요구성을 높인 이곳 일군들의 남다른 일본새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능력과 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 자양분이였다.

도정보통신국, 대동군과 안주시, 개천시와 성천군, 평원군체신소들의 뒤를 이어 숙천군, 은산군, 회창군, 순천시체신소들을 비롯한 관리국아래단위들에서 경제적실리와 효과성이 뚜렷한 새로운 과학기술적제안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쏟아져나오고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두뇌전, 실력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최근에만도 체신의 현대화와 운영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가치있는 수백건의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 합리화안, 개조안들이 실천에 도입되였다고 한다.

결코 남보다 조건이 좋고 기술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였다. 문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드는 심장의 열도에 있었다. 여기에서 혁신과 비약의 보검도 방법론도 나온다는것을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은 실천투쟁속에서 페부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이 더욱 로골화될수록 과학기술에 기초한 우리의 자강력, 자력자강의 위력은 천백배로 증대될것이다.

지금 평안남도체신관리국에서는 이런 신심에 넘쳐 체신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철웅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을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소형전지2종, 묶음전지1종, 개별우표1종)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의 웃부분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이라는 글발들이 씌여져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7월 3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신 우표가 중심에 있는 소형전지에는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와 친필문헌, 용암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로케트가 형상되여있다.

공화국기와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로케트, 지구의를 배경으로 한 소형전지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할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모신 우표가 있다.

시험발사과정, 대륙간탄도로케트가 만리대공으로 치솟는 모습이 반영된 묶음전지의 우표들과 개별우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대성공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새 우표들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여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고있다.

공화국정부에서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위한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8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빅또르 그랑헤 메이에 농업, 축산 및 식량상을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초대되였다.

고인호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적도기네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한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다.

대표단은 또한 평양초등학원, 평양중등학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할

외국손님들 도착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할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일행, 요니 모르텐센을 단장으로 하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단마르크준비위원회 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일행

단마르크준비위원회 대표단

카나다수상특사일행 도착

카나다수상특사인 다니엘 장 수상 국가안보보좌관과 일행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상무위원회 의장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3일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상무위원회 의장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드라간 죠위츠의장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리병두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의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의장은 조선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오랜 친선관계를 가지고있는 조선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익에 맞게 쌍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세안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

연회 마련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는 8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김영재대외경제상, 리길성 외무성 부상, 문재철 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주조 아세안위원회 의장인 밤방 히엔드라스또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팜 비엣 홍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혼캄 인타부아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씬 분트언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아세안나라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아세안성원국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세안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대결광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우리가 얼마전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며 무모하게 날뛰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것은 또한 이발빠진 늙은 승냥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주적과 재앙거리를 제대로 가려보지 못하는 남조선위정자들에게 준 개심의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와 충고를 새겨들을 대신 무슨 큰 변이라도 난듯이 대결적본색을 드러내면서 정세를 극한점에로 몰아가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록로된바와 같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또다시 성공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마자 남조선집권자는 황급히 《안전보장회의》전체회의를 긴급소집하고 그 무슨 《강력대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미국과의 현합한도미싸일발사훈련실시와 《싸드》발사대의 추가배치, 미국과의 《미싸일지침》개정협상추진, 독자적인 《대북제재》방안검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대북경계태세강화》를 지시하는 등으로 분주랑을 피웠다. 한편 괴뢰들은 《성명》이라는것을 통해 《중대한 위협》이니, 《얻을것은 외교적고립과 경제적압박뿐》이니 하는 고약한 망발을 줴쳐댔는가 하면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반공화국공조를 비롯질하는 추태까지 서슴지 않았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등과 그 무슨 《대북군사적대응방안》이라는것을 모의한데 이어 미국과의 현합한도미싸일발사훈련, 《B-1B》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중현합타격훈련을 련이어 벌려놓았으며 지어 《북지휘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정밀타격기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막아보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가 조작되자 괴뢰들은 《북에 상당한 타격이 될것》이라느니, 《환영》한다느니 하면서 상전의 범죄적인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돌격대로 나서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서슴없이 뛰여들고있다.

대미추종, 친미사대에 찌들대로 찌들어 나라의 정화도, 민족의 운명도 안중에 없이 날치는 친미매국노들의 추악한 대결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를 자아내고있다.

우리의 자위력강화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는 괴뢰당국의 범죄적망동은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만난을 헤치며 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춘것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포악한 날강도,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분별없이 날치는 침략자 미제와는 오직 강위력한 총대로만 맞설수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의 횡포한 도전과 야만적인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이겨내며 끝내 정의의 핵마치,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하였다. 이제는 침략의 아성, 악의 소굴이 강력한 주체무기들의 사정권안에 확고히 들어있으며 우리는 원쑤들이 움찍하기만 하면 무자비하게 답새길 만단의 준비를 튼튼히 갖추었다. 최근 련속적인 성공의 퇴성을 터치는 주체무기들의 장쾌한 위용을 두고 외신들이 지난 조선전쟁이후 60여년간 미국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해온 조선의 립장에서 볼 때 그것은 말그대로 숙원을 이룬것이라고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야말로 민족의 재보이고 자랑이며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더욱 억척같이 벼려야 할 정의의 보검이다.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서 더없는 자부심을 느껴야 할것이며 그를 지지옹호하는 립장에 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편에 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미국의 겨드랑이에 더 바싹 달라붙으며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쌀개빠진 나발이나 줴치면서 민족수호의 보검을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고있으니 이런자들에게 도대체 민족의 피와 얼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미국을 겨냥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대해 《위협》으로 걸고들며 지랄발광하는 괴뢰들의 망동은 그들스스로가 민족을 등진 반역집단으로서의 범죄적정체를 드러낸것이며 미국의 총알받이, 북침전쟁의 돌격대노릇을 함으로써 주체무기들의 사정권안에 목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백두산대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자기 민족, 자기 겨레의 운명을 소중히 지켜주는 더없이 믿음직한 방패이지만 민족의 원쑤들에게는 추호의 자비도 모르는 징벌의 철추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동족을 배반하는 길이 곧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없이 날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는 대결광들의 광란적인 불장난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전례없이 무모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

제재와 압박, 회유와 기만으로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발전과 불패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게 되자 미국은 핵전쟁도발이라는 모험적인 도박에 매어달리고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소식에 얼혼이 나간 미당국자들은 《힘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선택안의 준비》니, 《결정적대응》이니 하는 호전적망발들을 랑랑 늘어놓으면서 핵전략폭격기의 조선반도출격회수를 부쩍 늘이고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을 감행하는것과 함께 핵전략잠수함들의 전력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3대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군사적광기를 부리고있다.

문제는 미국의 허장성세에 덩달아 맞장구를 치는 괴뢰패당의 주제넘은 망동이다. 그들은 한갖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제 처지도 모르고 가소롭게도 그 무슨 《독자제재》니, 《강력한 군사적대응》이니 하고 불쑹사납게 놀아대고있는가 하면 지어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감히 《지휘무제거》니, 《독자적인 정밀타격능력마련》이니 하며 무모하게 날치고있다. 괴뢰국방부패거리들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한편 《경계태세강화》와 《만반의 대비태세유지》를 운운하며 북침전쟁분위기를 극구 고취하고있다. 지난 7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되여있는 괴뢰6해병려단과 연평부대의 155㎜자행곡사포 《K-9》, 해안포들, 지상대지상유도무기 《스파이크》, 특군부장직승기들을 동원하여 수백발의 포탄과 로케트탄을 쏘아대며 서해열점수역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군사적도발망동까지 감행하였다. 그것이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폭발국면에로 몰아가는 무모한 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괴뢰호전광들의 분수없는 대결망동이 언제 어디에서 폭발의 불씨를 튕길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금까지 그 무슨 《평화》와 《안보》에 대해 입이 닳도록 광고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에 꼬물만 한 관심도 없으며 오로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칠 불순한 야망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이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보수《정권》과 다를바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을 일삼으면서 핵전쟁의 광화를 불러오는 대결광신자들의 범죄적망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괴뢰들이 지금과 같이 보수《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매한짓을 계속한다면 모든것을 잃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괴뢰당국은 상전의 무분별한 전쟁광기에 맞장구를 치는것이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빚어내겠는가를 심사숙고하고 주제넘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은 정 철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요격할수 없는 《싸드》

남조선신문이 주장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7월 31일 사설에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싸드》로 막을수 없다는것을 주장하였다.

신문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에 당황해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핵전략폭격기들을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군사적책동을 감행한데 대하여 전하면서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미군기지에 잠추어두었던 《싸드》발사대 4기를 성주에 추가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이것은 국방부가 밝혔던 일반환경영향평가계획이 결국 《싸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울수 있다고 지적하고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싸드》는 장거리미싸일요격용이 아니라 중단거리미싸일요격용 무기체계이다.

이런 《싸드》로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요격한다는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보여주었던 론리와 태도에 비추어볼 때 이번 추가배치결정은 너무나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주권회복과 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들인 《통일뉴스》,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16개 지역과 로동자, 농민, 빈민, 녀성, 청년학생 등 각계층 단체들, 정당들로 구성된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추진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8.15를 계기로 대중적투쟁을 벌릴 의지를 밝히였다.

발언자들은 우리 민족이 분렬되고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범죄의 배후에도 미국이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죄행을 어물쩍해서 넘기려는 행위가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8.15를 계기로 반미기운이 합쳐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15일 서울광장과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그리고 광화문광장일대에서 범국민집회와 행진, 인간띠잇기평화행동을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번의 평화행동을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민족반역자, 분렬주의세력을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갈등이 격화되는 오늘 오바마-리명박근혜《정권》에서 추진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정책 그리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그만두고 평화체제구축으로 나아가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의 현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실패한 제재와 압박정책을 고집하고있다고 회견문은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미국이 자기의 핵위협행위는 그대로 두고 북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것은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해법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부》도 초불민심의 평화념원을 외면한채 박근혜악폐세력의 뒤를 따르며 미국에 추종하고있다고 회견문은 비난하였다.

회견문은 합동군사연습책동의 중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신하기 위한 협상 시작,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전쟁불사정책의 폐기, 《싸드》가동 및 추가배치 철회,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폐기를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며 주권을 되찾는것은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면서 회견문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미일전쟁패권세력, 주권과 평화를 내버린 사대굴종세력들에 맞서 적극적인 평화행동에 나서자.

박근혜악폐세력을 무너뜨린 그 힘으로 이 땅의 평화와 주권회복의 길을 열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계속되는 괴뢰당국의 언론탄압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였다고 하지만 진보적언론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이 계속되고있어 사회적분노를 자아내고있다.

1일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소속 보안수사대가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 대표 김병길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파쑈경찰은 그가 제주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넣어주는 등 련락을 주고받았다는것을 문제시하고있다.

경찰들은 그의 집에 달려들어 콤퓨터와 책을 비롯한 물품들을 압수하였다.

이에 대해 폭로하면서 《자주시보》는 페간된 《자주민보》 관련자들이 아직까지도 《보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현 당국도 공안탄압을 계속하고있다는것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인터네트에서 합법적으로 류통되는 자료를 보내준것이 무슨 죄인가고 신문은 반문하였다.

현 《정부》가 초불의 힘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공안당국은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괴는이 되여 날뛰고있다고 신문은 단죄하였다.

신문은 현 《정부》가 악법을 앞세워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진실을 덮어버리려 할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인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와 통일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보안법》을 폐지하고 량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자주시보》 대표 김병길은 공안세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정론지답게 신문을 운영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괴뢰군사병들에 대한 학대행위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괴뢰군 사병들이 날로 극심해지고있는 온갖 학대속에서 인권을 심히 유린당하고있다.

얼마전 괴뢰특군 2작전사령관이란자의 녀편네가 자기 집보초를 서는 사병들을 하인처럼 여기면서 마소와 같이 부려먹은 사실이 한 시민단체에 의하여 록로되였다.

이년은 사병들에게 빨래와 다림질, 위생실청소를 시키다 못해 안락의자와 바닥에 떨어진 제년의 발톱까지 치우라고 사병들에게 강요하였다 한다.

지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한다고 하여 사병들에게 썩은 과일을 집어던지면서 모욕하고 죄수처럼 가두어놓는것도 꺼리지 않았다.

사병들에 대한 비인간적학대행위는 괴물패덕한들이 살판치는 남조선괴뢰군과 그 족속들속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여있다.

돈을 위해 환자를 살해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병원원장이라는자는 지난 5월부터 7월초까지 치료비와 약값으로 많은 돈을 빨아내면서 환자에게 수십차에 걸쳐 마취제를 투약하였다고 한다.

결과 7월 4일 과도한 약물주입으로 환자가 숨지자 시체를 차에 실어 바다에 내다버리고 자살로 꾸미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족쇄를 찬 산송장의 유치한 오그랑수

지금 남조선에서는 구치소에 처박힌 박근혜년이 더러운 잔명을 건져보려고 눈뜨고 보지 못할 비루한 몸뚱로 추접스러운짓을 계속 연출하여 사람들의 혐오감을 더욱 자아내고있다.

지난 6월 박근혜역도가 재판도중에 책상우에 코를 박고 꼬꾸라지는 추태를 부려 재판을 중단시킨 사실, 그후에도 재판정에 나와 끄덕끄덕 조는척하면서 분위기를 흐려놓는가 하면 힘들다는 구실로 재판회수를 줄여달라고 앙탈을 부리고 발가락이 상했다고 엄살피우며 재판에 참가할수 없다고 나자빠지는 등 재판을 호지부지 만들기 위해 가살을 떤 사실들은 이미 록로되였다.

박근혜년이 창피스러운줄도 모르고 제년의 초췌한 골골을 사람들앞에 드러내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것은 두말할것 없이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 재판에서 극형을 면해보려는 간교한 술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년은 지난 7월에만도 발가락이 상해서 움직이기 불편하다는 구실로 3차례나 재판에 참가하지 않고 버티였다. 그통에 들볶이우는것은 구치소측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아프다고 노죽을 피울 때마다 구치소측은 의사를 부른다, 병원으로 실어간다 하고 여간만 비지땀을 뽑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7월말에도 박근혜는 발등에까지 염증이 퍼졌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기신기신 병원에 찾아가는 연극을 놀았다. 그것도 거의 죽게 된것처럼 보이기 위해 기자들앞에서 이불을 록 뒤집어쓰고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했다. 역도가 얼마나 재판정에 나서는것이 두려웠으면 이런 루추한 방법까지 생각해냈겠는가.

얼마전 괴뢰법원은 박근혜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구치소측의 확인에 따라 그에게 재판정에 출두할것을 요구했다. 하는수없이 재판에 끌려나오게 된 역도년은 마치 큰 부상이나 당한듯이 구두대신 쌘달을 신고 일부러 다리를 절룩거리는 등 그야말로 흉물스럽게 놀아댔다.

한때 《대통령》이랍시고 거들먹거리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제 고를만큼도 여기지 않던 악마년이 발가락에 난 보잘것없는 상처따위를 무여잡고 놀아대는 꼬락서니는 참으로 괴씸하기 그지없다.

역도년은 재판도중에 규정을 어기고 고용변호인의 손전화기를 훔쳐보다가 적발되여 《제신머리없는 추물》이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다.

제면도 가죽속에 있다고 스스로 사약을 먹고 뻐어 없어져도 시원치 않을 천하악귀가 수치도 모르고 살아보겠다고 서툰짜리 요술을 피워대는 꼴이 너무 역겨워 세상사람들은 침을 뱉고있다.

박근혜역도의 추태는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청와대에 들고앉아있을 때에는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기를 내뿜으며 악정을 일삼던 암독사가 감방에 처박히게 되자 더러운 명줄을 무지해보려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며 동정을 구걸하고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간추물 박근혜역도를 절대로 용서치 말고 무자비하게 처형해야 한다는것이 민심의 일치한 목소리이다.

박근혜역도가 산송장이 된 주제에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최후심판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보려고 버드럭거릴수록 민심의 조소와 격분만 자아낼뿐이다.

원한악녀가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인간추물 박근혜년이 력사의 무덤속에서 되살아나 다시는 그 뻔뻔스러운 상통을 쳐들고 다니지 못하게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시위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량심수가족들과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성원들, 각계층 시민, 청년들이 5일 서울에서 량심수들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초불을 들고 《모든 량심수를 석방하라!》, 《대통령은 8.15특별사면을 결단하라!》고 웨치면서 광화문광장에서부터 괴뢰청와대앞까지 행진을 하였다.

그들은 현 당국의 무당한 립장때문에 초불국민들이 만들어낸 《정권》하에서도 량심수들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있다고 성토하였다.

그들은 0.75평의 독감방에 갇혀있는 량심수들을 그대로 두고 8.15를 맞이할수 없다고 하면서 현 집권자가 초불민심이 준 권한으로 모든 량심수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초음파기술을 정복해가는 실력가집단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초음파기술을 리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제작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음향공학연구실을 찾았다.

아담하게 꾸려진 방에 들어서니 규모있게 놓여있는 각종 초음파장치들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우리와 만난 실장 리경호동무는 초음파기술의 응용분야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초음파는 주파수가 2만㎐이상으로서 사람이 들을수 없는 소리파의 일종이며 높은 지향성과 에네르기밀도를 가지고있는것이 일반 소리파와 다른 점이다. 세계적으로 초음파거리계, 초음파현미경, 초음파가공기, 초음파세척기 등 초음파기술이 응용된 각이한 제품들이 개발되여 여러 분야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특히 인체에 해롭지 않은 초음파의 진동작용, 온열작용, 화학작용 등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질병들을 진단하거나 치료할수 있다는것이였다.

리경호동무는 우리에게 한족에 듬직하게 놓여있는 제품을 가리키며 이것이 최근에 개발한 효능높은 초음파세척기라고 소개하였다. 얼마전에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는것이다.

겉모양부터가 우리의 맛과 긍지를 자아내는 정이 푹 드는 제품이였다.

이 초음파세척기로는 주로 표면이 복잡하거나 깊은 구멍들이 있는 제품, 실험기구 및 수술도구, 귀금속제품 등을 효과적으로 세척할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리용하면 세척공정을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할수 있으며 세척효과도 훨씬 높일수 있다는것이였다. 세척액으로는 수도물을 리용할수 있다는데 아주 흥미가 있었다. 알카리, 산, 유기용매세척제들도 리용할수 있고 세척시간도 자체로 설정할수 있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온도조종기능도 첨가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것을 리용한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다고 리경호동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리면서 그는 청년과학자들인 황주영, 김성철, 박승혁동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여주었다. 그들이 어떤 부하조건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수 있는 주파수추종방식의 초음파발진단을 우리 식으로 제작함으로써 초음파세척기를 만들수 있는 관건적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것이다.

세계적으로 광범히 응용되고있는 초음파기술을 리용하여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가지 종류의 초음파장치들을 모두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였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초음파응용의 핵심기술들을 하나하나 정복해나가는 미더운 청년과학자들의 씩씩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후덥게 달아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이 연구실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핵심으로 자라난 젊은 연구사들이 이룩한 성과는 이뿐이 아니였다.

물통이나 저장탱크를 개조하지 않고도 초음파치료를 진행할수 있는 각종 규격의 투입형초음파진동판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가지이상의 액체들을 균일하게 유락시키는데 리용할수 있는 초음파분산유화장치도 훌륭한 제품이였다. 공기중의 습도를 보장하거나 정전기를 제거하고 먼지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인 소출력 및 대출력초음파안개발생장치도 이들이 제작한 첨단수준의 제품이였다.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모두가 우리 과학자들이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데 대한 당의 승고한 뜻을 어떻게 결사관철해나가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어 우리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여 백두산대국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의 불굴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첨단기술개발의 앞장에서 더 높은 비약을 이룩하며 전진해나아가는 이런 과학자들이 있기에 과학기술강국의 래일은 더욱 더 가까와지는것이 아닌가.

연구집단의 자랑은 이뿐이 아니였다.

넓은 강판의 한가운데나 판의 벽과 같이 한면만 드러나있는 제품의 두께를 신속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초음파두께측정기와 각종 주물품들과 용접부위의 기포, 균렬 등 내부결함들의 위치와 크기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휴대용초음파결함탐지기도 자랑할만 한 제품들이였다.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이곳 연구집단의 비상한 창조적열정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여서 무심히 볼수 없었다. 더우기 우리를 기쁘게 하는것은 이 모든 성과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자원으로 이룩한 자강력의 창조물들이라는것이였다.

이 연구집단이 생겨난지 불과 몇년 되지 않는다는 리경호동무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었다.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들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참된 애국의 마음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첨단수준의 제품들을 팡팡 개발하는 실력가집단으로 되게 하였을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첨단기술제품들이 개발되여 우리 생활과 보다 가까와지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며 음향공학연구실을 나섰다.

본사기자

전화의 용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서— 본사기자 신 충 력 찍음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상농광산 6.6갱 박기록, 강명호채준소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상농광산 6.6갱 박기록, 강명호채준소대원들이 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광물생산에서 련일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소대들에서는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지난 4월 3일과 14일까지 상반년계획을 일당겨 끝낸 박기록, 강명호채준소대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소대들에서는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 6월 박기록채준소대원들은 뜻밖의 일로 갱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결사전을 벌려 불과 3시간만에 갱을 복구하고 그날계획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명호채준소대원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련속공격전을 벌려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그리하여 박기록채준소대원들은 지난 6월 19일까지, 강명호채준소대원들은 6월 25일까지 년간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6.6갱 박기록, 강명호채준소대원들은 높은 광물생산성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맞이할 불같은 열의밑에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상 두

일본반동들은 무자비한 핵주먹앞에서 졸망스럽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최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군사적정거망동이 도를 넘어서고있다.

우리의 탄도로케트기지들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능력보유》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 8월 4일 새로 방위상자리에 올라앉은 오노데라는 기자회견에서 일본방위성이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북의 미싸일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를 검토하고있다는 립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신임방위상놈의 발언으로 하여 여론이 분분한 속에 일본언론들은 《방위성이 북의 탄도미싸일공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북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능력보유여부를 검토하고 래년에 확정되는 방위대강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있다.》고 록로하는 보도들을 련속 쏟아내고있다.

결국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게에서까지 《북의 위협을 구실로 한 군국주의에로의 회귀》, 《북선제공격합리화를 위한 명분쌓기》, 《위기반전을 노린 정치적술수》라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현 일본지배층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해나라들의 정치적무지와 교활성, 경박과 허세가 가져다준 웃당한 귀결이라고밖에 달리볼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자위력강화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일본반동들이 분수없이 졸딱 나서서 미국의 앵무새처럼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북새통을 피워댄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구실로 정부기관청사구내에까지 요격미싸일을 상시배치해놓는 소동을 벌린것도,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의 기동전개훈련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생업에 바쁜 일반주민들까지 동원시켜 그 무슨 대피훈련이요 뭐요 하며 분주탕을 피워댄것도 다름아닌 일본반동들이다.

도를 넘는 일본반동들의 이 작태에 국제사회는 물론 남조선괴뢰들까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있으며 지어 상전인 미국까지도 일본의 잘망스러움으로 하여 저들에게 돌아올 후폭풍을 우려하면서 쓴입만 다시고있는판이다.

그러면 일본반동들이 왜 우리의 자위력강화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그토록 악을 쓰며 푼수없이 놀아대는가 하는것이다.

추구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조선반도에 일본《자위대》무력을 주동적으로 들이밀기 위한 명분을 얻고 나아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자는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제침을 정당화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현 일본지배층은 상전인 미국의 비호밑에 2016년 3월 《안전보장관련법》을 발효시켜 《자위대》에 《집단적자위권》행사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으로 특정비밀보호법, 조직범죄처벌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련이어 꾸며내면서 국내의 파쑈화를 급속도로 다그쳤으며 최근에는 해외침략야망실현의 최종단계라고 할수 있는 현행헌법의 개악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해외침략을 추구하는 일본반동지배층에게 있어서 사실상 이제 남은것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것뿐이다.

일본수상 아베가 일본의 헌법시행 70년 관련행사에서 《북의 핵, 미싸일개발로 안보환경이 변화되였으므로 현행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력설해대며 여론을 오도하고 일본당국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북의 위협에 대처한 예비방안마련》이니, 《전쟁준비》니 하며 떠들어댄것이 불과 엊마전에 있은 일이다.

이를 두고 당시 외신들이 일치하게 《헌법개악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억지주장》이고 《자위대의 해외작전수행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으로서 여기에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조선반도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음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고 평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오죽하면 제질적으로 우리를 악의에 차서 걸고드는데 습관된 남조선괴뢰보수패들지들까지도 일본반동들의 도를 넘는 《북위협》극대화책동에 《확인이 안된 사실을 거론하며 군사력증강을 합리화하려는 일본특유의 호들갑》이라고 로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겠는가.

일본반동들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에 대한 우리의 《위협》을 과대선전하여 저들의 간특한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에 얼혼이 빠진 미제가 그 무슨 《화학무기사용》을 빗대고 힘이 약한 중동나라에 대고 화풀이를 해대자 발빠르게 나서서 상전의 《용맹성》을 극구 찬양하고는 《북이 자린가스를 미싸일에 장착해 발사할수 있다.》고 요사를 피워댄것도 궁극에는 지역내 긴장을 더욱 격화시켜 저들의 군국주의부활야망을 실현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상전의 허세에 기가 살아 가소롭게도 우리에 대한 그 무슨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지경에 이른것이다.

폭발이반동들의 잘망스러운 작태는 무능한 정치로 하여 초래된 최악의 집권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아베일당의 얄은 속내와도 직결적으로 관련되여있다.

현재 아베족속과 그 측근들의 련이은 추문비리사건들과 악화되고있는 경제위기, 고리를 무는 사회적악재들로 하여 일본집권지배층에 대한 민심리탈은 급격히 가속화되였으며 지난 7월초에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다음기 국회선거의 투영도라고 할수 있는 도쿄도의회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하여 아베내각의 현 지지률은 사회적전의 위험수준인 30%이하까지 급락하였다고 한다.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아베일당은 개각을 단행한다, 인사이동조치를 취한다 어쩐다 하며 모지름을 써댔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또다시 《안보카드》를 꺼내들고 국정위기탈출용으로 써먹으려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떠들어대는것도 언론의 주목을 다른데로 돌리고 국내론의의 초점을 《북의 위협》에 대처한 《안보문제》에 집중시켜 확산되고있는 반정부민심을 돌려세워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모든 사실들은 아베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본의 현 반동지배층이 일본에 대한 《북의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댐으로써 최악의 집권위기에서 벗어나는것과 동시에 미제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자위대》무력을 《합법적》으로 파견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며 나아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고 획후발악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일본렬도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릴수 있는 능력을 갖춘지 오래다.

더놓고말하여 우리는 애당초 일본반동들따위는 셈에도 넣지 않고있다.

우리의 자위적핵무력의 고도화조치들은 세기를 이어오는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적선택이다.

다종화된 전략무기들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의 면전에서 여름밤의 하루살이마냥 영영거리며 분수없이 놀아대는것이 자멸을 초래하는 자살행위로 된다는것을 모른다는데 일본의 비극이 있다.

일본반동들이 계속 좀스러운 낯짝을 드러내놓고 졸망스럽게 놀아대다가는 무자비한 핵주먹의 드센 강타를 면치 못할것이며 그렇게 되는 경우 일본렬도가 통채로 태평양에 수장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최상의 높이에 이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떨어지고있는 사태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우리를 걸고들며 푼수없이 놀아대지 말아야 할것이다.

류 일 오

용납할수 없는 깡패국가의 도전행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깡패국가 미국의 반공화국광증이 도를 넘어섰다. 바로 며칠전에 똑바른 주견도 주대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에게 저들의 부당한 요구를 강권으로 내리먹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날조해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내놓고 공개한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재결의》가 조작되자마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조선에 매우 큰 경제적충격을 줄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잠소리를 꿰쳐댔는가 하면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수하졸개들은 조선이 지속적인 핵미싸일개발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 희떠운 나발을 불어대며 돌아쳤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허물어보려 하고있다. 미국것들과 그 하수인들속에서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를 전면차단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가 조선의 외화수입을 감소시키고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자금조달통로를 차단하는데서 실효적인 의미가 있다는 망발들이 튀어나오고있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제재와 봉쇄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가로막고 나중에는 힘으로 합법적인 정권을 뒤집어엎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현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나라 정권들을 제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태를 재현해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번 대조선《제재결의》조작으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말짱 드러내놓았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며 정면도전이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제재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그렇게 발악적으로 광기를 부린적은 없었다. 그만큼 트럼프패거리들은 앞뒤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분별을 잃었다.

정세는 더는 간과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로 치닫고있다.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겠다고 나선 미국에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무자비한 보복조치로 징벌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날강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있는데 대처하여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말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공화국은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는것이 주체조선의 배짱이며 기질이다. 우리에게는 미국을 징벌할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미국이 저들의 땅덩어리가 대양건너에 있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 국가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걸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하겠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강경한 립장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망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할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우리의 선택은 지극히 정당하며 그 누구도 가타부타할 권리가 없다.

미국은 명심하여야 한다. 비상히 강화된 우리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한다면 차례질것은 파멸뿐이다.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군사적도발도 나라의 자주권과 정화를 수호하고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지 못한다.

리 학 남

조선반도핵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우리 나라 외무상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연설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리용호외무상이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7일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전해를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미국때문에 오늘의 지경에로 번져진 문제이며 그 책임도 전적으로 미국에 있는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여러건의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냄으로써 이 문제를 조선 대 유엔사이의 문제처럼 둔갑시키고있다.

미국의 강권때문에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극단에로 치닫고있으며 충돌위험이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다.

연단성원국들이 우리의 핵 및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가 미국이 떠드는것처럼 《세계적인 위협》인가 아니면 미국에 한한 위협인가를 정확히 가려보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장전 첫날부터 장장 70년간 실시하여온 적대시정책이 없었더라면, 그 적대시정책이 로골적인 핵공갈과 위협으로 심화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핵문제라는것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미국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살륙한 나라이다.

그런 미국이 일본에서 핵무기를 사용한지 5년후인 조선전쟁시기에는 우리 나라에도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언하였다.

핵공갈로 하여 수백만명의 피난민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후과가 오늘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문제로 남아있다.

1957년에는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실전배비함으로써 조선반도핵화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1970년대부터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여기에 핵전략자산들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우리 나라만큼 미국의 핵위협을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그토록 직접적으로, 그토록 극심하게 당해온 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선전수단들로 하여 세계는 이러한 진실을 잘 알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그 무슨 《도발》을 일삼는듯 한 그릇된 인식이 류포되여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처음부터 핵으로 맞서려 한것이 아니였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이 문제를 유엔에도 상정시켜보고 총회결의도 채택해보았고 미국과 직접 마주앉아 협상도 해보았으며 여러 형태의 다자회담들도 해보았으나 모든것이 허사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끝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갖은 시도를 중지하지 않았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듯이 핵위협이 있는 곳에는 핵억제력이 나오기마련이다.

핵으로 전쟁을 억제할수 있다는것은 핵무기가 이 세상에 출현한 후 전기간의 력사를 통해 증명되였다.

핵보유국들은 군사적공격을 받은 일이 없는 반면에 핵을 못가진 그레네이다, 빠나마, 아이띠, 이전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는 미국의 군사적침공과 간섭을 받아 정권교체를 당하였다.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억제력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우리 공화국이 다른 핵보유국들처럼 핵과 로케트를 극비밀리에 개발해온것이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의 개발과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주며 투명성있게 개발, 완성해온것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어 미국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려는데 목적을 두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에서 미국의 군사적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자면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할수 있는 대륙간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우리는 이 길에서 최종관문을 넘어섰으며 미본토전역을 우리의 사정권안에 넣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이번에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이다.

미국의 반공화국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도가 없다.

우리의 핵보유가 《세계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면서 유엔을 악용하여 조선반도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것은 이 문제가 철두철미 조미사이의 문제라는 본질과 저들의 책임을 가리우고 남을 희생시켜 제 피속을 차리려는 《미국제일주의》의 적라라한 표현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조선제재에 끌어들이려고 그처럼 안간힘을 쓸수록 그것은 오히려 유엔안보리사회의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문제점만을 드러내보이게 될뿐이다.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안보리사회결의를 존중하고 리행하게 되여있으므로 《제재결의》가 공정하고 타당한것이라면 미국이 구태여 뛰여다닐 필요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사회는 유엔헌장과 국제법들에 모순되게 한 유엔성원국의 국방력강화조치를 제멋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는 불법월권행위를 저질렀으며 모든 상임리사국들이 다 먼저 진행한 탄도로케트발사를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 금지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의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강박하려고 자국대사들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총동원하여 그토록 안달복달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세계가 《미국제일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점차 각성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정정당당한 자위적선택인 우리의 핵보유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으로, 확고부동한 국가의 전략적로선으로 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또다시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강력한 후속조치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자력자강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에 충분히 대처할수 있으며 미국이 끝내 군사적으로 덤벼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여있다.

그는 회의에 참가한 여러 외무상들이 조선반도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있지만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거나 못하는 나라들은 사실 조선반도핵문제에 대해 언급할 도덕적자격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든든한 핵억제력을 마련함으로써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위험을 결정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연단의 다른 성원국들 특히 아세안성원국들이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과 《미국제일주의》의 위험성을 잘 가려보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립장과 태도를 취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 진행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가 6일과 7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리용호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과 10개의 아세안성원국 등 27개 나라와 지역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리용호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선택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회의기간 우리 나라 외무상은 중국, 로씨아,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 외무상들과 만나 쌍무관계와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무상은 접촉들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의 산물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새로운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고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경제발전노력

에짚트에서 2일 경제지대창설에 관한 문건이 채택되였다.

문건은 천연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국가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에 따라 항구도시인 사파가에 새로운 경제지대가 건설되며 대상건설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벌어지고있다.

환경보호조치

인도네시아정부가 3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대량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의 자연풍경

한편 최근 남아프리카내각은 록색에네르기를 리용한 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을데 관한 전략초안을 작성하였다. 현재 이 나라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10.8%는 운수수단들에서 뿜어져나오고있다 한다.

《국제인권재판관》의 오만한 추태

미국이 주제넘는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실태》를 제멋대로 평가하는 오만한 추태를 또다시 부려 국제사회게의 경악을 자아냈다.

얼마전 미국무성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2017년 세계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보고서는 이란을 비롯한 반미국이며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하여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는 무근거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그 무슨 《국제법과 기준》을 운운하면서 해마다 세계인신매매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것을 조작하는데 열을 올려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국제법과 기준》이라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일삼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것으로서 국제사회의 흥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미국의 가소로운 처사는 즉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보고서가 이란의 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일방적이고 편전적이며 정치적이중기준에 기초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인신매매행위는 사실상 미국의 간섭주의적인 침략정책에 근원을 두고있다고 록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통하여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까밝히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인신매매에 대해 론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이다.

인신매매범죄률에서 단연코 세계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이기때문이다.

인신매매통보기관 폴라리스는 2016년에 미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그 전해에 비해 35.7% 늘어났으며 캘리포니아 한개 주에서만도 지난 한해동안에 1 323건의 인신매매범죄가 기록되였다고 록로하였다.

폴라리스는 미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매매업자들이 록력이나 기만, 강압적인 방법을 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의가 아닌 상업적인 성봉사나 로동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제도의 한 형태》로 락인하였다.

최근에도 력사스주의 휴스톤시에서는 인신매매업자들의 마수에 걸려 화물자동차에 짐짝처럼 실려가던 10여명의 외국인이 적발되였다.

문제는 미행정부가 인신매매가 성행하는것을 묵인하고 범적으로 분제시하지 않고 이를 극구 조장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의 금지를 규제한 수많은 국제인권협약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있을뿐아니라 인신매매 및 매춘금지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있다.

미국이 《국제법의 준수》를 제창하며 다른 나라들의 《인신매매실태》에 대해 시비하는것은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인신매매범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온갖 매통패덕과 악의 근원인 미국을 심판석에 끌어내어 재판해야 한다는것이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조선중앙통신】

《반테로전》확대를 노린 침략무력증강책동

최근 미국이 수천명에 달하는 미군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추가로 파견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방장관은 국회청문회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기간 《반테로전》을 벌리고있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개탄하면서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교착상태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사태를 즉시 바로잡을것이라느니, 대통령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병력규모를 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느니 하면서 그는 미군병력을 증강할것이라고 밝혔다.

탈리반과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세력들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정세가 악화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트럼프행정부는 전 오바마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너무 빨리 철수시켰다, 전쟁은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 전쟁은 그자체가 예측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의 《반테로전》확대를 정당화해나섰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더 많은 무력을 파병하도록 나토에 압력을 가하였다.

지난 6월말 나토는 성원국 국방상들의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새 아프가니스탄전쟁전략에 따라 파병규모를 확정할데 대해 결정하였다.

사실 미국과 나토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 못이겨 2014년말 아프가니스탄에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고 침략무력을 전부 철수하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정부군이 자체로 《반테로》작전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을 때까지 군사훈련을 도와준다는 구실밑에 8 400명의 미군을 포함한 약 1만 3 500명의 나토군을 남겨놓았다.

오바마행정부가 2016년말까지 아프가니스탄주둔무력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던 공약을 질질 끌면서 리행하지 못한것을 다행으로 여긴 현 트럼프행정부는 이 나라에 무력을 증강하는데 또다시 매여달렸다.

지난 5월 미국은 1 500명의 특수군무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전개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부대들에 제공할 600대의 군용자동차를 은밀히 끌어다놓았다.

지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과 6월 미국방장관과 미합동참모본부의장이 줄줄이 이 나라에 날아들어 현지료해요, 상황파악이요 하며 분주탕을 피웠으며 맥케인을 비롯한 미국회 상원 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나라들을 행각하여 전쟁전략실현에서 놀게 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떠들어댔다.

중앙아시아나라들과 파키스탄,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더욱 확대하려는 미국의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은 지역나라들의 커다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국 제 과 학 기 술 소 식

전자복사를 리용한 우유멸균방법 개발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전자복사를 리용한 우유멸균방법을 새로 개발하였다.

빠스뙤르멸균방법은 우유를 72℃까지 가열하여 해로운 인자들을 제거하는데 이때 효소와 비타민 등 생우유의 유익한 성분들도 파괴한다.

그러나 전자복사를 리용하는 새 방법은 빠스뙤르효과를 나타내면서도 가열공정이 필요없으며 생우유속의 유익한 성분을 보존해준다.

학자들은 전자선형가속기를 리용하여 우유가 전자복사의 작용을 받게 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이 해로운 세균을 죽일수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우유속의 유익한 성분들을 잃지 않는다는것을 밝혀냈다.

전자복사후 유익한 성분들중 리보플라빈의 함량은 32% 낮아졌지만 우유속의 리보플라빈원천은 여전히 충분하였다.

또한 다른 성분들도 생우유의 조성과 비슷하게 남아있었다.

열전기재료를 얻어낼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우주비행체의 고효률열전기발생기에 필요한 재료를 경제적으로 신속히 제조할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재료는 열에네르기를 직접 전기에네르기로 전환한다.

새로운 제조기술은 금속화합물의 구조적특징을 응용하여 구멍이 있는 금속화합물결정체를 만든 다음 또다시 원자를 리용하여 이러한 구멍을 메꾼다.

이렇게 얻어낸 열전기재료는 두가지 원자를 가지고있다. 즉 결정삼창안에 고정되여 높은 전기전도성을 담보하는 원자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열전도률을 낮추는 원자이다.

연구사들이 밝힌데 의하면 새 기술에서는 인디움으로 충진재료를 만들고 적합한 금속을 선택하여 배합한 후 개방식반응기안에서 필요한 재료를 합성하는데 이때 합성과정은 2분만에 끝나며 5시간만에 소분된다고 한다.

이 재료와 합성기술의 특징은 총체적인 과정을 종전보다 훨씬 단축하고 재료의 원가를 낮추는것이다.

【조선중앙통신】

ㄱ-71125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